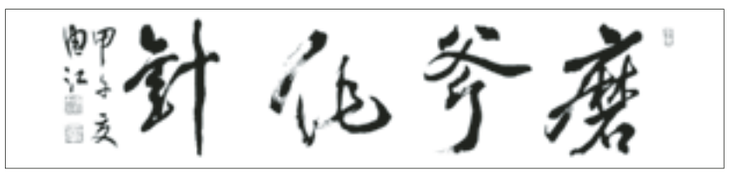
■ 고사성어 ⑫



마부작침(磨斧作針)

由江 權丞世

경북 영주생 검교공파 34세

-약력-

·개인전4회, 초대그룹전250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작가, 운영위원, 심사위원 역임
·영남미술협회 회장
·유강 서화연구원 원장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뜻. 곧 ①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참고 계속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성공함의 비유. ②노력을 거듭해서 목적을 달성함의 비유. ③끈기 있게 학문이나 일에 힘씀의 비유.

시선(詩仙)이라 불렸던 당나라의 시인 이백[李白:자는 태백(太白), 701~762]의 어렸을 때 이야기이다. 이백은 아버지의 임지인 촉(蜀) 땅의 성도(成都)에서 자랐다. 그때 훌륭한 스승을 찾아 상의산(象宜山)에 들어가 수학(修學)했는데 어느 날 공부에 싫증이 나자 그는 스승에게 말도 없이 산을 내려오고 말았다. 집을 향해 걷고 있던 이백이 계곡을 흐르는 냇가에 이르자 한 노파가 바위에 열심히 도끼(일설에는 쇠공이[鐵杵])를 갈고 있었다.

"할머니, 지금 뭘 하고 계세요?"

"바늘을 만들려고 도끼를 갈고 있다[磨斧作針]."

"그렇게 큰 도끼가 간다고 바늘이 될까요?"

"그럼, 되고 말고. 중도에 그만두지만 않는다면……."

이백은 '중도에 그만두지만 않는다면'이란 말이 마음에 걸렸다. 여기서 생각을 바꾼 그는 노파에게 공손히 인사하고 다시 산으로 올라갔다. 그 후 이백은 마음이 해이해지면 바늘을 만들려고 열심히 도끼를 갈고 있던 그 노파의 모습을 떠올리곤 분발했다고 한다.

등용문(登龍門)

용문에 오른다는 뜻. 곧 ①입신 출세의 관문을 일컫는 말. ②영달의 비유. ③주요한 시험의 비유. ④유력자를 만나는 일.

용문(龍門)은 황하(黃河) 상류의 산서성(山西省)과 섬서성(陝西省)의 경계에 있는 협곡의 이름인데 이곳을 흐르는 여울은 어찌나 세차고 빠른지 큰 물고기도 여간해서는 거슬러 올라가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나 일단 오르기만 하면 그 물고기는 용이 된다는 전설이 있다. 따라서 '용문에 오르다'는 것은 극한의 난관을 돌파하고 약진의 기회를 얻는다는 말인데 중국에서는 진사(進士)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입신 출세의 제일보라는 뜻으로 '등용문'이라 했다.

'등용문'에 반대되는 말을 '점액(點額)'이라 한다. '점(點)'은 '상처를 입는다'는 뜻이고 '액(額)'은 이마인데 용문에 오르려고 급류에 도전하다가 바위에 이마를 부딪쳐 상처를 입고 하류로 떠내려가는 물고기를 말한다. 즉 출세 경쟁에서의 패배자, 중요 시험에서의 낙방자를 가리킨다.

후한(後漢) 말, 환제(桓帝:146~167) 때 정의파 관료의 지도적 인물에 이응[李膺:자는 원례(元禮)]이란 사람이 있었다.

그는 청주자사(靑州刺史)·촉군 태수(蜀郡太守)·탁료 장군(度遼將軍)을 거쳐 하남윤(河南尹:하남 지방의 장관)으로 승진했을 때 환관의 미움을 받아 투옥당했다.

그러나 그 후 유력자의 추천으로 사예교위(司隷校尉:경찰청장)가 되어 악랄한 환관 세력과 맞서 싸웠다.

그러자 그의 명성은 나날이 올라갔다. 태학(太學)의 청년 학생들은 그를 경모하여 '천하의 본보기는 이원례'라 평했으며 신진 관료들도 그의 추천을 받는 것을 최고의 명예로 알고, 이를 '등용문'이라 일컬었다.

■ 우강 권이혁 전 장관 에세이

선과 악 ①

〈지난호에 이어〉

선(善)과 악(惡)을 판결하기가 힘들다고 느끼게 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남을 비판하려 할 때는 자기 자신이 적어도 그 사람과 대등한 실력자라야 한다고 하던 대학예과 시절의 S철학교수의 말씀이 젊었던 나에게 대단한 자극을 주었던 사실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당시에는 문학평론이나 비평이 유행하였던 시절이었기에 더욱 인상적이었는지도 모르겠다. 바이블도 부분적이기는 하였지만 읽을 기회가 있었다. 사람을 가리는 일을 하지 말라는 구절이 눈에 띄었다. 사람을 가리고 재판하는 것은 하느님의 일이지 사람이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이 대목은 신자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도 항상 인용된다.

나의 체험담: 구 경성제대 예과에 입학하였던 1941년 12월 8일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인 학생들과 일본인 학생들 사이에는 큰 충돌이 없었다. 워낙 숫자가 적었던 한국인 학생들은 묵묵히 학업에 정진하는 일만이 있었을 뿐이다. 학외 활동으로는 스포츠가 있었지만 한국인 학생들은 축구부나 농구부에 가입하였다. 일본인 학생들과 스포츠를 같이 하는 일이 체육시간 외에는 거의 없었다. 그렇기에 한국인 학생들의 학업성적은 월등하였고 양심 있는 일본인 교수들에게는 극찬을 받기도 하였다.

일본의 진주만 공격을 계기로 전쟁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은 당연하다. 미국과 영국을 귀축미영(鬼畜米英)이라며 반미영 사상을 북돋는 나날이 계속되었다. 미국과 영국은 용서할 수 없는 악(惡)의 나라인 것이다. 물론 일본은 선(善)의 나라이며, 선이 악을 무찌르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민족감정이 생긴 것도 이때부터이다. 3년제의 대학예과 과정이 2년 반으로 줄어들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1943년 9월에 의학부로 진학하였다. 4월 개학이던 학칙이 9월 개학으로 변한 것이다.

선과 악의 대립: 점점 선과 악의 개념이 심각하게 대립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들에게는 일본이 악의 상징으로 변한 것이다. 이리하여 우리들의 동기생 11명이 학부 1학년 때 대한협동당에 입당하게 되었다. 학부 2년생 때인 1944년 12월에 이 사실이 일경에 발각되어 6명은 체포되어 구금되었고 나를 포함한 5명은 도피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전에도 몇 번이나 소개한 바 있어서 여기서는 생략한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악행이라는 정도는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던 상식이지만, 중학교 때 교련시간에 소련이 가상 적국이라는 교육을 받았다. 식민지 정책이나 적국이 악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것은 어린 시절이 아니라 젊은 시절부터였다. 악에 대한 판단기준이 점차로 명백해졌고 악의 범위도 상당히 넓어졌다.

세상에 악마(惡魔)라는 단어가 있고 누구나 악마는 피하려 한다.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거나 나쁜 길로 유혹하는 마물이 악마이다. 아주 흉악무도한 사람을 악마라고도 한다. 한마디로 악의 대표요, 상징이다. 그런데 이 악마의 정체가 점점 묘연해지는 것이 현실이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2011년 8월 24일(수) 실시된 서울시민의 무상급식을 가리기 위한 주민투표를 예로 들어보자. 학교급식을 전적으로 무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냐·선택적 복지냐를 시민에게 묻는 주민투표였다. 선택적 무상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여당인 한나라당의 안이고 보편적 무상급식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측의 안이다.

민주당은 나쁜 투표이니 아예 투표장에 가지 말라고 투표거부운동을 하였고 한나라당은 많이 투표해 달라고 호소하였다. 투표율이27.5%여서 투표율 기준인 33.3% 미달로 무효 처리됐다. 개봉되지도 못한 채 폐기된 것이다. 결국 한쪽에서는 투표해 달라는 것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투표하지 말라는 것이니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나 자신도 그랬지만 많은 시민들이 혼란에 빠졌을 것이다. 어떤 쪽이 선이고 어떤 쪽이 악인지 구분할 수가 없었다. 슬픈 일이지만 이것이 우리들이 맞이하고 있는 현실이니 참으로 안타깝고 괴로운 일이다.

나의 일생에서 투표거부운동이 당 차원에서 추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민투표가 법적으로 합당하기 때문에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위법이고 부당하니 아예 투표하지 말라고 야당은 주장하니 정치를 모르는 나로서는 참으로 혼란스러웠다. 어찌 생각하면 주민투표가 공개투표같이 되었으며 투표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투표가 되었다고까지 하니 민주주의란 참으로 복잡하구나 하고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바가 있기도 하였다.

투표결과에 대한 여야 의견: 여야에 따라서 투표결과에 따른 해석이 정 반대적이다. 여당에서는 오시장이 25.7%의 지지를 받았는데 총 유권자 838만 중 215만7744명이 투표한 것이니 대단한 성과였다고 하였다. 예상 투표율을 상회하였으며 그만큼 시민의 마음을 얻게 되었다고 평하였다.

이에 대해 야당은 서울시민의 75%가 야당의 보편적 급식 안에 찬성한 것이며 보편적 복지를 펴나갈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는 승자의 변을 내놓았다. 여야의 기싸움은 점입가경이다. 나도 이번 주민투표에서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혼자서 고민했다.

〈다음호에 계속〉

崇祖愛親 ④

玄岡 權 錫 祚

(사)한국서화예술인협회 초대작가
(사)대한민국 낙동예술협회 초대작가
〃 〃 부이사장

조상을 숭배하고 친족을 사랑한다.

槐雲 칼럼

대마도 방문 有感(斷想)

▣ 槐雲 權 海 兆 (僕射公派, 三槐堂宗中)

얼마 전 대마도(對馬島 : 쓰시마)에 다녀왔다. 대마도는 현재 일본 나가사키 현(長崎縣)에 속해있는 남북 82km, 동서 18km로 면적이 약 709 평방km인 제주도의 40%의 크기의 섬이다. 총 110개 섬에 크게 상도(上島), 하도(下島) 2개 섬으로 나누고, 행정구역은 여섯 개의 마치(町) 구분하고 있다. 현재 약 4만여 명이 살고 있으며 90%이상이 산지로 대부분 어업과 임업에 종사하고 있다.

대마도는 우리나라 거제도에서 49km, 일본 후쿠오카에서 138km 떨어져 있는 제주도보다 가까운 섬이다. 옛날부터 한국과 일본의 전쟁과 교류의 관련지역이었고 대마도를 보면 한일 간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곳이다.

대마도는 삼한시대부터 고려, 조선시대까지 우리나라를 공격한 일본 해적이나 군대의 기지가 되었고, 우리도 대마도를 왜국의 소굴이라 하여 정벌소탕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매우 조용하고 아름다운 섬으로 일본인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으며, 년 간 6만 명 이상의 한국관광객이 찾아가서 역사의 흔적을 더듬어보고 낚시와 등산을 즐기는 여가공간이 되고 있었다.

이번 방문을 통하여 대마도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한일 간의 교류와 전쟁의 흔적과 한일 간의 몰랐던 역사의 진면목을 볼 수 있었다. 남쪽 이즈하라(嚴原)항 시내중심부에는 옛날 조선통신사를 맞이하기 위해 만든 가라몬(高麗門)과 좌측에 조선통신사의 비석이 세워져 있었고 비석 옆에는 대마역사 민속자료관에는 선사시대로부터 조선통신사 관련 그림과 우리나라에서 전래된 불상, 경전, 청자 등을 볼 수 있었다.

동남쪽에 백제 비구니 법묘스님이 창건한 슈젠지(修善寺)에는 1907년 면암 최익현 선생의 장례식을 치룬 곳으로 선생의 순국비가 세워져 있다. 북쪽에는 대마도 번주의 자손인 소 다케유키(宗武志) 백작과 고종황제 딸 덕혜옹주와 결혼을 축하하면서 세워진 기념비가 있었다. 미즈시 마치(美津島町)에는 나당 연합군의 일본 침공에 대비하여 신라에게 나라를 빼앗긴 백제유민들이 667년경에 쌓은 것으로 알려진 가네다(金田)산성과 남섬과 북섬을 연결하기 위한 1900년에 세워진 만세키 바시(萬關橋)가 있었다. 일본은 1672년 만세키 운하를 만들어 후나코시 해협을 바다로 만들었으며, 러일 전쟁 때 이 운하를 통해 러시아 함대를 기습공격을 하였다한다.

그리고 아소만(淺茅灣)주변의 섬들의 해변은 작은 배들은 숨고 나타날 수 있는 천혜의 지역으로 옛날 왜구들의 근거지였다 한다.

그리고 미네마치(峰町)중심부에는 일본 선사시대인 조몬시대부터 근세까지 중요유적이 전시되어 있는 역사 민속자료관이 있었다. 가미아가타마치 서남쪽에는 선조대왕 후궁으로 보이는 1613년 조선 선조왕 왕비의 묘와 북쪽 미나토(湊)에는 고국인 신라 왕자를 구하려다 죽음을 맞은 신라충신 박제상을 기리는 비석이 있었다. 북쪽 가미쓰시마마치(上對馬町)지역 최 동쪽에는 1997년 서울 파고다 공원 정자의 팔각정 지붕을 모델로 지은 한국전망대가 있었고 그 남쪽에 1703년 조선 역관사 108명이 타고 있던 배가 외니우라(鰐浦) 부근에서 조난을 당해 그들을 기리기 위해 1991년에 세운 조선 역관사 위령비가 있었다.

대마도의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이름도 옛 가야인들이 '나룻터 섬'이란 뜻으로 진도(津島: 쓰시마)라 불렀으며, 김해지방에서 바라본 누워있는 두 마리의 말처럼 보여 부르게 되었다는 유래가 있다. 성종 17년 (1486년)에 편간한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1786년 일본에서 만든 삼국통합(三國統合), 1855년의 영국에서 제작한 지도, 1865년 미국이 제작한 지도 등에 우리의 영토로 되어 있다.

1592년 임진왜란 때 도요또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부하가 그린 '팔도총도(八道總圖)'에도 대마도가 조선 영토로 표기되어 있다. 1857년에 일본이 제작한 해좌전도(海左全圖)에도 울릉도와 대마도에 대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특히 1868년 10월 8일 일본 메이지정부(明治政府)가 행한 '대마도가 조선의 제도(諸島)에 포함되는가?'라는 제목의 시말조사(始末調査)에서도 '대마도주가 조선국왕이 하시(下賜)한 인장을 받아 운용하고 있는 것은 조선의 제도상 신하가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대마도는 여러 역사적 고증사료나 국제법상 공인 지도 등으로 볼 때 분명한 한국 땅이다. 그러나 한국은 국내외 사정으로 오래 침묵해왔다. 국제법상 영토의 취득방법은 선점·강점·첨부(添附)·할애·취득시효 등에 따르는 것이 있다. 그 중에 취득시효의 방법은 상대국이 항의하거나 수복절차를 밟지 않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실효지배(實效支配)가 인정되어 소속국 영토로 확정되는 것이다. 일본은 이처럼 자국화가 된 대마도 영유권을 영구히 확보하기 위해 한 술 더 떠서 덤으로 독도의 영유권을 집요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1679년 출판된 프랑스 여행가 타베르니에의 '여행서'에 최초로 대마도 우하단과 일본의 후쿠오카 사이 해역을 '고려해(Mer de Coreer)'라 하고 있고 이를 1787년부터 '조선해협'으로 표기했는데 일본정부가 1861년에 이 조선해협을 대마도와 부산사이로 변경하였으며, 1999년부터는 또 이름을 '조선해협'에서 '쓰시마해협(對馬海峽)'으로 고쳐 쓰고 있다.

결론적으로 대마도는 그동안 대륙문물을 일본에 전하는 창구역을 해왔으며, 한일 간의 전쟁과 교류 등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 모두 이곳을 거치며 펼쳐졌다. 지금의 대마도는 옛적의 해적이나 전장(戰場)의 역겨운 냄새가 나지 않고 그저 평화롭고 아름다운 청정지역이었고, 지리적으로 가깝고 한국의 정취와 역사가 숨쉬고 있어서인지 하루에도 수백 명씩의 우리나라 관광객이 찾고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대마도의 군사적 전략적 가치를 간파하여 또 다른 일본의 침략을 대비해서 영토실지회복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만약 고려, 조선시대 선조들이 국내정쟁에 벗어나 대마도를 정벌 점령하여 제주도처럼 대마도에 귀양도 보내고 일본 본토를 방어했으면 왜구들의 노략질도 임진왜란도 없을 것이며 우리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돌아 왔다.

재미있는 나무 이야기 ⑥

나목(裸木)

▣ 靑南 權 寧 漢 (안동전통문화연구회장)

한국의 미는 선의 미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한식집이 지닌 지붕의 곡선, 고려자기의 유려한 곡선, 한복의 미묘한 곡선 등 그 예는 일일이 다 들 수 없습니다.

가령 동쪽 하늘에 비행기가 한 대 떠서 그대로 서쪽 하늘로 날아간다면 우리는 그저 '비행기가 한 대 날아가나 보다.'하고 별로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비행기가 머리 위에서 한 바퀴 크게 원을 그려 돌고 가면 모두들 발걸음을 멈추고 비행기, 비행기 하면서 하늘을 쳐다볼 것입니다.

그 까닭은 같은 비행기라도 그 비행기가 공간에 그리는 곡선이 아름다워서 그렇게 의식하는 것입니다.

음악도 우리의 음악은 선율의 음악입니다.

서양 음악은 장엄한 화음을 위주로 한다면, 우리의 가야금이나 대금 등은 물결치듯, 파도치듯 높고 낮게 흐르고 흐르는 선율의 아름다움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변 어느 것을 봐도 선의 미와 무관한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러한 견지에서 나목을 보면 더욱 정감이 가고 아름다우며, 나무의 참모습을 보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잠자는 듯 가만히 있는 겨울에 나목도, 사실은 그 내면에서 부단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수원을 경영하는 분들은 누구나 겨울나무 둥치가 엄청나게 잘 굵어지고 있다는 것을 늘 보아 왔을 것입니다.

유교에서 하는 진성 공부나 불교에서 하는 참선 공부는 눈을 감고 한자리에 앉아서 움직이지 않으나, 내면인 정신세계에서는 우주도 뒤흔드는 대단한 힘과 깨달음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소우주의 내면에서, 자기완성을 이룩하고, 마음의 눈을 떠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이러한 공부는 남이 보면 지나칠 정도로 정적이고 잔잔합니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 4차원의 세계와도 통하는 큰 능력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정중유동 (靜中有動)이란 말은 바로 이런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겨울나무는 내면을 충실히 하고 내면의 세계에서 대오각성(大悟覺醒)하려는 도인과도 같은 엄숙함이 있습니다.

필자는 사시사철 모든 나무를 참 좋아합니다만 겨울의 나목은 각별히 정겨운 눈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줄기의 아름다움을 생각한다면 소나무에 당할 나무가 없습니다만 소나무는 겨울에도 나목은 아닙니다.

잔가지의 아름다움은 아무래도 느티나무에 당할 나무는 없을 것입니다.

찬 하늘을 배경으로 알뜰히도 잘 뻗어나간 느티나무의 잔가지를 보면 그 섬세함에 넋을 잃고, 아름다운 자연의 조화미에 그저 감탄할 따름입니다. 나목은 바로 그것이, 비길 데 없이 잘 만들어졌고, 또한 살아 있는 커다란 조각품이라는 것을 거듭 느낍니다.

위장된 모습이 아닌, 생긴 그대로를 몽땅 보여주는 진실의 상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사랑한다고 할 때 나무의 어디를 사랑하고, 어디를 나무의 가장 중요한 실체라고 생각합니까? 해마다 생겼다가 저버리는 잎일까, 피었다가 지는 꽃일까, 또는 열매일까? 잘 생각해 보면 나무의 실체는 역시 나목이 보여주는 그것 그대로라고 생각됩니다.

삭막하다고만 생각한 겨울의 산야에는, 그의 참모습을 드러내고 우리를 기다리는 많은 나목이 있습니다.

생긴 그대로를 가식 없이 보여주는 수줍은 나목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겨울이 가기 전에 많이 보고 많이 느끼며, 또한 많이 사랑하기 바랍니다.